

# 스포츠 동아

2019년 9월 5일 목요일  
sportsdonga.com 10판

## 스타 & 스타



### 조보아의 사슴을 닮은 눈빛

연기자 조보아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 집에서 열린 한 음료 관련 행사에서 손가락 하트를 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조보아는 건강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과시하며 해당 음료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US여자오픈 트로피 들고 금의환향...월드스타 이정은의 '골프와 가족'

## “우승 영상을 보니 자꾸 눈물이...”

美골프협회 주관으로 첫 해외 트로피 투어 “메이저 우승으로 자신감...도전정신 생겨” 장애인 아빠, 엄마 “우리 외동딸 참 대견 딸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카레 챙겨왔죠”

그때의 감격이 다시 벅차올랐을까. 3개월 전 우승의 순간이 깜짝 상영되자 이정은(23·대방건설)은 무대 옆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잠시 뒤, 주인공의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정은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US 여자오픈 트로피 투어를 통해 ‘금의환향’했다. 비단웃을 걸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단어 뜻처럼, 우승 당시 착용했던 상의를 그대로 입은 채 뜻 깊은 자리를 만끽했다.

### ●특급 신예의 트로피 투어

지난 6월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이정은은 우승 트로피를 안고 돌아왔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후 첫 우승을 최고의 메이저대회에서 이뤄낸 이정은은 후식기를 맞아 3일 모처럼 귀국했고, 이번 자리를 빌려 국내 골프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정은은 “오랜만의 귀국이라 가슴이 설렌다. 사실 US여자오픈은 출전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우승까지 하게 돼 정말 기뻐다. 더불어 이렇게 큼직한 트로피를 내보일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LPGA 투어 진출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나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남은 대회에서도 우승을 해야겠다는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트로피 투어는 US여자오픈 주관단체인 미국골프협회(USGA)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2008년 박인비(31·KB금융그룹)가 트로피를 들고 귀국한 사례가 있지만 이날처럼 트로피 투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USGA 크레이그 아니스 디렉터는 “한국 선수들은 그간 US여자오픈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이정은 역시 올해 대회에서 나흘 내내 멋진 플레이를 펼쳤고, 극적인 우승으로 우리의 가족이 됐다”면서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 ●효녀 가정의 뜨거운 눈물

6월 우승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이정은은 이날 역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정은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그 기분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 다시 보게 되니 솔직히 맛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뒤 “한국에서 는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



US여자오픈 우승의 주인공 이정은이 금의환향해 국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4일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최하는 트로피 투어에 참가한 이정은(오른쪽)이 아버지 이정호, 어머니 주은진 씨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미국골프협회(USGA)

국에서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정은의 골프 인생을 뒷바라지한 아버지 이정호 씨(55)와 어머니 주은진 씨(49)도 행사에 동석해 의미를 더했다. 뿌듯한 표정으로 외동딸의 트로피 투어를 지켜본 주 씨는 “투어 생활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래도 이렇게 뜻 깊은 날의 주인공이 된 딸을 보니 대견한 마음이 든다”면서 “딸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팔죽을 먹고

싫다더니 막상 비행기에서 내리니 간장게장과 카레가 당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제 급히 음식을 만들어 챙겨 먹었다”고 말했다. 올해 LPGA 투어 유력한 신인왕으로 꼽히는 이정은은 국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달 말 레이스를 재개한다. 남은 목표도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다.

“시상식장에서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하하.”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벤투호 오늘 조지아와 친선전...손흥민, 누구와 투톱 나설까? ▶ 8면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2458호(2019.07.30) (COM-2019-07-30330)

**암** 이완치된 지금

(최근 5년 이내 제외)

**질순** 이 넘은 지금

(40~75세 가입가능)

**당뇨** 를 달고사는 지금

**암재발** 이 걱정되는 지금

**혈압약** 먹는 지금

**암보험** 하나 없는 지금

지금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때! (간편심사 통과시)

무배당 (갱신형)  
꼭 필요한 암보험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드문하게  
일시금  
장액 지급

진기남비그림 상담원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19.09.01 ~ 2019.12.31)  
\*본 광고에 표시된 내용은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가입 후 30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며, 30일 이후에는 계약금에 따라 취소가 어렵습니다.  
\*본 상품은 1인당 1회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90일 이내 보장(단, 소액입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50%)•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민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가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